

가족처럼 살아가는 쪽방촌 알코올 의존자들의 일상 탐구: '관계'와 '유대감'을 중심으로

최미경¹, 상중열²

¹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연구원, ²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A Study on Alcoholics Living like a Family in the Jokbang Village: Focusing on 'Relationship' and 'Emotional Bond'

Choi Mi Kyung¹, Sang Chong Ryel^{2*}

¹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for Life and Culture, Sogang University

²Assistant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for Life and Culture, Sog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의존 노숙인을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의 핵심은 가족을 대체할 만한 영향력 있는 관계'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림동 쪽방촌 일대에서 알코올 의존 노숙인을 지원하는 'H-공동체'의 사례를 스프레들리가 제시한 문화기술지 방식으로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알코올 의존자들은 H-공동체를 중심으로 '가족을 대체할만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 속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큰 정은 없어도 잔정으로 살아가기'라는 문화적 주제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관계와 유대감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각자의 생애과정과 건강, 나이, 경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논의에서는 이 같은 차이를 '가족을 대체할만한 관계', '정서적 유대감', '참여' 정도를 통해 유형화시키고 논점으로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알코올 의존 노숙인에게 필요한 함의를 제시하고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알코올 의존, 노숙인, 가족의 기능과 역할, 쪽방촌, 문화기술지

Abstract we explored the case of 'H-Community', a private organization that supports alcohol-dependent homeless people living in the Jokbang village, based on the awareness that "the key to social assistance for alcohol-dependent homeless may be an influential relationship to replace the role of their families."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followed the research that Spradley presented, and the result was 'living in the balance rather than the great affection'. However, the density of the relationship and emotional bond appeared different, which had something to do with their respective life processes and their health, age and economic conditions. These differences were categorized and suggested as arguments through 'a family-alternative relationship', 'emotional bond' and 'participa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conclusions presented the implications needed for alcohol-dependent homeless people.

Key words : Alcohol dependence, Homeless, Family function and role, Jokbang village, Ethnography

*The research wa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7S1A5B8057479)

*Corresponding Author : Chongryel Sang(crsang@hanmail.net)

Received April 1, 2019

Revised May 3, 2019

Accepted May 20, 2019

Published May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가족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알코올 의존자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알코올 의존은 개인 질병이 아닌 '가족 질환(family disease)'으로 불릴 정도로[1,2]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5]. 알코올 의존에서 회복으로 가는 과정에도 가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알코올의존자의 치료나 단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의 지지라는 연구결과가 있을 만큼, 가족은 알코올의존자의 회복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6-8].

그런데, 알코올 의존 이후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사는 알코올 의존 노숙인의 경우는 어떠할까? 가족이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과 가족의 지지가 알코올의존자의 회복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는 알코올 의존자에게 가족을 대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최영아[9]와 김선민[10]은 노숙인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의 핵심은 '가족을 대체할 만한 영향력 있는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것임을 제시한다. 김다운[11]과 오현주[12]는 노숙인을 위한 주거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를 넘어 노숙인들 간에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 연구들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는 노숙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정서적 유대감'과 같은 인지적인 측면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노숙인 지원 및 돌봄에 관한 학술적 문제의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이 같은 문제 인식에 따른 변화는 사회복지정책과 실천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주거 지원서비스를 통해 서울역 주변 노숙인들이 쪽방촌을 중심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민관협력을 통해 쪽방촌 구성원 간에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역 주변에 소재한 소위 '동자동 쪽방촌'과 '중림동 쪽방촌'이다. 그중에서 중림동 쪽방촌은 2007년 설립된 민간단체인 H-공동체가 한때 노숙 생활을 하던 알코올 의존자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노숙인 지원센터를 통해 이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이에 대해서는 상종열과 최미경이 민간단체와 공적 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조라는 '복지의 혼합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측면에서 고찰한 바 있다[13]. 하지만, 위의 연구는 쪽방촌 알코올의

존자의 '돌봄'에 논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알코올 의존자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 '가족을 대체할만한 관계'를 이해하거나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유대감'과 같은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림동 쪽방촌의 사례를 통해, 가족공동체를 지향하는 H-공동체 관계자와 쪽방촌 일대에 거주하는 알코올 의존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내부자 관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알코올 의존 노숙인들이 인지하는 '가족을 대체할 만한 영향력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알코올 의존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노숙인을 위한 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질문

연구 질문은 '중림동 쪽방촌 일대에서 H-공동체와 관계하며 가족처럼 살아가는 알코올의존자의 일상은 어떠하며,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이다.

2. 연구방법과 절차

2.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H-공동체 관계자와 쪽방촌 일대에 거주하는 알코올 의존 노숙인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내부 문화를 통해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기술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중에서도 3단계에 걸쳐 관찰과 질문을 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문화적 주제를 도출하는 Spradley '12단계 발전식 단계'를 선택하였다[14].

2.2 연구현장

서울역 인근에 소재한 중림동 쪽방촌에는 약 80-120명 정도의 알코올의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는 서울역 주변의 노숙인들이 값싼 주거공간을 찾아 이곳으로 몰려들었으며, 2007년에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 신부가 이들을 돕기 위해 쪽방촌 일대에 '한가족'이란 이름을 내걸고 H-공동체를 설립하였다. 좁은 대지에 3층으로 세워진 H-공동체 건물은 30여 개의 쪽방이 모여 있는 골목길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이 건물 1층에는 H-공동체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사랑방'이 있는데, 이곳에서 H-공동체 관계자는 알코올의존자를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공동체 행사를 준비하기도 한다. H-공동체

건물 반경으로 30M 이내에는 고시원, 여인숙 등이 있으며, 이곳에도 알코올의존자가 거주한다.

2.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관찰과 인터뷰를 중심으로 하였다. 우선 관찰을 통해 그들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상징과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주요 정보제공자를 선정하고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남성이며 한때 노숙 생활을 하였다. 이들 중에는 15세 이전에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았던 사람도 4명이 있으며, 인터뷰에 참여한 15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정보제공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formants (n=15)

Participants	Age	academic background	Marriage
informants 1	60s	high school	Divorce
informants 2	50s	elementary school	Single
informants 3	40s	high school	Single
informants 4	50s	elementary school	Single
informants 5	60s	middle school	Single
informants 6	60s	middle school	Single
informants 7	40s	high school	Single
informants 8	60s	high school	Single
informants 9	50s	elementary school	Single
informants 10	50s	high school	Single
informants 11	40s	high school	Single
informants 12	50s	high school	Single
informants 13	40s	elementary school	Single
informants 14	50s	elementary school	Single
informants 15	50s	high school	Divorce

2.4 자료 분석

연구자는 H-공동체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랑방에서 식사를 책임지는 관계자의 보조원 역할을 하면서 연구현장에 진입하였다. 연구 초기에는 서술관찰과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쪽방촌 일대 알코올 의존자들이 H-공동체 관계자와 동료 알코올 의존자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탐색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족공동체를 지향하는 H-공동체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관찰

을 하고 구조적인 질문을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알코올 의존자들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에 있어 차이를 발견하고, 이 같은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선별관찰과 대조적 질문을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특정한 문화적 범주 가운데 차이를 찾는 작업'을 통해 이들이 인지하는 가족을 대체할만한 관계 의미를 파악하였고, 최종적으로 자료를 분류하고 다시 통합하면서 연구 질문에 부합 하는 문화적 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2.5 타당성 확보 및 윤리적 검토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는 약 7개월 동안 현장에 머물면서, 일지를 작성하고 순간의 사건에 대해 메모하였으며, 매주 1회씩 동료연구자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순환적 단계에 이를 만큼 자료의 포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회의를 하였으며, 이 같은 수집 및 분석과정은 최종적인 문화적 주제를 도출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문화적 주제를 도출한 후에는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하고 동료연구자의 검증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수정하는 등 문화기술적 접근에서 요구되는 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정보제공자인 알코올의존자와 인터뷰를 할 때는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자의 권리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진행하였다. 연구현장에서 나올 때는 귀중한 시간을 내준 정보제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소정의 선물을 지급했다. 한편,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IRB) 윤리심사를 거친 후 승인(SGUIRB-A-1812-79)을 받았다.

3. 연구결과

3.1 가족처럼 살아가는 알코올의존자

3.1.1 '한술밥'과 '눈칫밥'을 먹는 사람들

사랑방은 일반 가정의 거실처럼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주방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상을 차리면 알코올의존자들이 이곳에서 '삼시 세끼'를 먹을 수 있는데, 의외로 식사 중 대화하는 이들이 많지 않으며 식사 이후에는 곧바로 자신들의 거처로 내려간다. 한술밥에서 나온 밥을 함께 먹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식구(食口)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서 분리되어 살았거나,

‘밀바다 삶’을 살면서 ‘눈칫밥’을 먹었던 사람들은 H-공동체 관계자가 제공하는 식사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때문에, 식사 전후에 사람들이 사랑방에 모이기는 하지만 식사 후에는 바로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랑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편하지는 않아요. 농담도 못 하고 옆 사람에게 피해 줄까 봐 (14)

이들이 사랑방보다 자기 거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곳이 편하기 때문이다. 마치, 일반 가정에서 자녀들이 주방보다 자기 방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알코올 의존자들은 식사나 공동체 행사를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House)보다는 독립적 공간인 방(Room)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내 안식처니까. 애착이 가죠. 계절 되면 다르게 해보고, 잘 수도 있고. (10)

3.1.2 동료 ‘죽음’에서 드러난 유대감

중립동 쪽방촌 일대에 거주하는 알코올 의존자들은 좀처럼 자신의 공간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일대 거주자 중 상당수는 알코올성 만성질환이 있음에도 여전히 술을 마신다. 그러다 보니, 술로 인해 각자의 거처에서 쓰러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쪽방에 쓰러져 술 먹고 늘어진다면 죽은 거나 똑같아요. (1)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H-공동체 역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H-공동체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맡아 하는 쪽방촌 알코올의존자는 술 때문에 사랑방에 나오지 못하는 식구에게 식사를 가져다주고, 깨어나면 목욕해주는 방식으로 H-공동체의 돌봄 활동에 참여한다. 이들은 혼자 병원에 다니기 어려운 동료 알코올의존자가 있을 때는 병원에 동행하기도 하고, 원가족이 돌봄을 거부할 경우 병간호를 하기도 한다.

후두암이라고 해서 늦었다고 하니까 말기예요. 폐 대장에 전이 됐어요. 3개월 항암치료하고 해서 중간중간 도와주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중략)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고집에 세요. 독특해요.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8)

돌봄과정에서 쪽방 동료 알코올의존자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 소식이 알려지면, 자신의 거처에서 나오지 않으려던 사람들도 죽은 자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하고자 장례식장으로 간다. 그들에게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동료는 훗날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도 가족이 없으니까 그렇겠구나. 우리 식구들이 저렇게 들어주겠구나. (9)

친분이 없는데 사람이 없으면 가주는 거죠. 가는 사람들이 안편이 있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당할 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10)

3.1.3 ‘밥’보다 ‘정’에 굶주린 사람들

사랑방 식사시간에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이들이 좀처럼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면에는 진실한 정에 굶주린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 가족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 중 하나는 깊은 정을 나누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쪽방촌에 들어온 알코올의존자 대부분은 동료들과 정을 나누고 살지 못한다. 쪽방촌 동료 중에는 정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과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지는 않는다.

여기 사랑방 사람들이 가슴을 터놓고 말을 못 해요. 대화하고 싶어도 깊은 대화를 못 해요. 누구하고도 서로가 창문을 못 열어요. 저도 그렇고, 공간이라는 것도 있고. (13)

대화 부족은 알코올의존자와 H-공동체 관계자 사이에도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알코올의존자 입장에서는 이곳에는 식구는 있어도 가족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은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쪽방촌에 오기 전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져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밥 주는 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밥 먹는 거는 식구에요. 가족이라면 모든 것을 먼저 내놓고 품는 거예요. 내놓을 수 없고서는 품을 수 없어요. 외로움을 다 감추고 있어요. (3)

반면에, H-공동체 관계자와 함께 동료의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밥만 먹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낸다. 이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동료들과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족의 모습이라고 인식한다. 때문에, 이들은 앞으로 어떤 관심도 위로도 기대할 수 없는 이름뿐인 원가족에 집착하지 않는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쏟아부어도 말이 많고 내 가족은 더 힘들고 여기는 더 편하고 여기는 은신처이지만 원래 가족하고 단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이 가족이라도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서는 못살지요, 가족이 필요한데 여기가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8)

그런데, 이처럼 인식하고 행동하는 사람 중에는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가족 간에 정을 느끼지 못하고 혼자 살았던 경우도 있다. 이들은 오랫동안 홀로 살았기에 H-공동체 관계자와 동료 알코올 의존자들과 정을 나누고 사는 것만으로도 가족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랑방에서 함께 밥 먹고 말벗도 있고 혼자보다 낫지요. (2)

3.1.4 그래도 '내 편'인 H-공동체 사람들

H-공동체 관계자나 쪽방촌 동료들과 정을 나누지 못하는 알코올의존자는 각자의 처소에서 술을 마시며 이를 해소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쪽방촌 밖으로 나와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리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알코올 의존자들은 경찰서나 파출소를 들락거리기도 하는데, 이때 H-공동체 관계자는 그들의 편에 서서 지지해준다.

저는 무조건 엄마로서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는. 그 사람이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려도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의 심정으로 죽을 때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H-공동체 관계자)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같은 H-공동체 관계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쪽방촌을 떠나기도 한다. 특히, 건강상태가 양호하거나 근로 능력이 있거나 목돈을 모아 고시원이나 임대주택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새로운 관계를 찾고자 한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중립동 쪽방촌 일대로 다시 돌아온다. 이는 중립동 쪽방촌을 벗어난 후 홀로 살면서 겪게 되는 외로움 때문이기도 있지만, 무엇보다 술 먹고 행패 부려도 자기를 지지해줄 사람이 H-공

동체 관계자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나가면 절제가 안 되니까 혼자 못 사는 거예요. (14)

공동체 바깥세상에서 살아 본 사람들은 다시 쪽방촌에 들어오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이곳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H-공동체 관계자나 동료들과 적잖은 유대감을 가지고 살았음을 자각하게 된다.

3.2 '큰 정'은 없어도 '잔정'으로 살아가기

3.2.1 건널 수 없는 강

H-공동체 내에는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는 문화가 존재한다. 이 같은 문화는 쪽방촌 일대에 거주하는 알코올 의존자들이 H-공동체 관계자와 각자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동료의 돌봄 활동이나 식사 준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랑방에서 한술밥을 먹으며 또 하나의 가족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원가족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유대감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이 같은 문화에 실망하고 '마음의 빗장'을 걸고 살아간다.

이 같은 H-공동체 문화는 동료 간에 관계 맺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호감을 느끼는 동료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도 하지만, 이내 접고 더는 다가서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수년간 함께 살면서도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며,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서로 간에 '속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한다. 특히, 과거를 묻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들 간에는 '과거 묻지 않기'라는 불문율이 형성되어 있다. 사랑방에서 식사하는 동안에 침묵하고, 식사 이후에는 각자 공간으로 돌아가는 일상의 모습에는 '눈치밥'이나 '정에 굶주린 마음' 이외에도 이처럼 알코올의존자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서로 귀찮은 거예요.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그렇지요. 본인들의 상처가 많으니까 저만 이렇게 살았겠어요? 다들 비슷할 것 같아요. (8)

저도 그렇고, 여러 번 봤어요. 쪽방 사람들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상처와 피해의식이 많아 속마음을 나누지 못해요. 관심이 없어 외롭죠.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지만, 쪽방이나 사랑방 문화에 적응해요. (13)

3.2.2 고독은 나만의 것

동료들과 속 깊은 대화를 하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난날의 기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잃어버린 지난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은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후회스러워도 돌이킬 수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알코올 의존자들은 이 같은 고독감과 상실감을 지우기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한다.

대화가 없으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이 자꾸 잠겨요. 혼자 기도하면 우리가 못하죠. 5분이거나 10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에이 힘들어서 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는 거죠. (1)

내가 키웠기 때문에, 친동생은 생각이 나오. 가난이 여기까지 왔는데 다 버리라는데 머릿에서 떠올라요. 설날 추석날 더 떠올라요. (중략) 가족이 생각나면 술을 먹어요. (9)

3.2.3 ‘과부’가 아는 ‘홀아비’ 사정

이처럼 동료 알코올의존자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른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 시간에 술을 마시다 보면 탈진해 쓰러지기도 한다. 어제 누가 쓰러져 사랑방에 나오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쪽방촌 동료들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전후 사정을 알아차린다. ‘과부’ 사정은 ‘홀아비’가 알듯이, 그가 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마음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동료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식사도 가져다주고, 방 청소도 해준다. 이들은 각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료 알코올 의존자에게 다가가고,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를 통해 잔정을 느낀다.

술 그만 먹고 회복해야지 맨날 그러면 어떡하나? “형! 고마워” 하는데 말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더 먹을 때가 되면 끝나. 먹더라도 속이 안 받을 때 나같이 피토하면 못 먹지요. 개도 한두 번이 아니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못 먹으면 나오겠지 해요. 방 청소도 해주고 똥, 오줌도 있어. (1)

저에게 쟁겨줄 것은 쟁겨줘요. 집에서 술 있으면 냉장고에 술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사람 되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술은 끊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끊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는 소

중한 경험이지요. 지지세도 되고 (10)

사랑방에는 100원으로 뽑아 마실 수 있는 미니 커피 자판기가 있다. 그런데 정보제공자 4는 이 자판기가 ‘애물단지’라고 표현하였다. 그냥 방으로 돌아갈지, 커피를 뽑아서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자판기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언제나 커피를 뽑아 주는 것은 아니다. 커피를 건네며 마음을 나누려는 욕구가 발동하는 상황은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때, 내지는 잔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이다.

선물이에요. 애물단지이자 사랑의 선물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저걸로 마음을 많이 나뉘어요. 자기 사랑을 나눠주고 맘에 들면 커피 한잔 빼주고 맘에 안 들면 빼고 자기 마음의 표시를 해요. (H-공동체 관계자인) 수사님도 그렇고 기분이 좋을 때 이쁜 짓을 할 때. (4)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립동 쪽방촌 일대에 소재한 H-공동체 관계자와 알코올 의존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징과 관계를 내부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알코올 의존자들은 H-공동체와 쪽방촌을 중심으로 ‘가족을 대체할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속에서 최소한의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H-공동체 관계자나 동료 알코올의존자와 관계를 맺고 유대감을 형성해가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생애과정에서 일찍 원가족과 분리되어 가족의 정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알코올의존자(Type 1)는 H-공동체와 쪽방촌 울타리 내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가족을 대체할만한 관계’의 밀도 측면에서도 가장 높았다. 이들은 H-공동체 관계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알코올의존자 돌봄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역할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은 더 커졌다.

건강이 나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Type 2)들은 ‘가족을 대체할만한 관계’나 ‘정서적 유대감’ 차원에서 어린 시절 가족과 분리된 사람들보다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높았다. 또한, 이들은 H-공동체 관계자나 동료 알코올의존자의 돌봄을 받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관계 맺음에 있어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다.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원가족과 깊은 정을 나눈 적이 있던 알코올의존자(Type 3)의 경우 H-공동체와 동료

알코올의존자와 맺는 관계를 '가족을 대체할만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특히, 건강이 양호하고 경제적 여력이 있는 알코올의존자(Type 4) 중에는 새로운 관계나 유대감을 찾아 적극적으로 중립동 쪽방촌을 벗어나기도 했다. 밀도 측면에서 이 두 부류는 H-공동체와 쪽방촌 울타리 내 사람 중에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쪽방촌 바깥으로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Type 4는 Type 3과 달랐다. 이 같은 차이를 유형화해보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Typification of density dimension

Sotation	a family-alternative relationship	emotional bond	participation
Type 1	high	high	active
Type 2	middle	middle	passive
Type 3	Low	Low	passive
Type 4	Low	Low	active

이 같은 유형화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알코올의존자 사이에는 '큰 정'은 없어도 '잔정'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설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 내부에 존재하는 이 같은 인식과 행동의 차이를 발견하고 기술하는 것이 알코올의존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기초 지식이 된다는 점에서 제시하고자 했다. 향후, 노숙 생활을 했던 알코올의존자가 많이 모여 사는 '동자동 쪽방촌'이나 여타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다른 공동체 사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이후에, 이 같은 유형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의존 노숙인을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의 핵심은 '가족을 대체할 만한 영향력 있는 관계'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H-공동체 사례를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중립동 쪽방촌 일대에서 H-공동체와 관계하며 가족처럼 살아가는 알코올의존자의 일상은 어떠하며,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라는 연구질문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으며, Spradley가 제시한 문화기술지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드러난 문화적 주제는 '큰 정은 없어도 잔정으로 살아가기'로 나타났다. 쪽방촌 일대에 거주하는 알코올 의존자들은 마음을 터놓고 살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잔

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이 같은 정서적 유대감은 쪽방촌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이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편, H-공동체는 중립동 알코올 의존자들이 거주하는 쪽방촌을 지켜주는 기동 역할을 하고 있었다. 비록, 쪽방촌 알코올 의존자들에게 원가족과 같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하지는 못했지만, H-공동체 관계자들은 알코올 의존자들이 '쪽방촌'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H-공동체는 농촌 마을의 어귀에 서 있는 '당산나무'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지닌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2018년 보건복지부가 제도 도입을 천명한 이후,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제도화를 위한 기초 지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급여복지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학술적이면서도 정책적인 개념이다[15]. 이 같은 융합적인 개념을 조밀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욕구에 기초한 현장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연구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알코올의존자의 욕구, 즉 '가족을 대체할만한 관계'에 대한 욕구의 다층적인 양상을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중립동 쪽방촌 사례만을 가지고 욕구의 다층적인 측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한때 노숙의 삶을 살았던 알코올의존자가 거주하는 동자동 쪽방촌 사례를 '가족을 대체할만한 관계'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유대감'을 파악한 후에, 중립동 쪽방촌의 사례와 비교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노숙인을 위한 주거 지원서비스 측면에도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난 알코올 의존 노숙인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욕구 중 하나는 거처할 공간으로서 집(House)이라기보다는 가족의 정이었다. 비록 적은 공간인 쪽방(Room)이라도 따스한 정을 나누고 살 수 있는 정서적 공간으로서 집(Home)과 같은 분위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형화된 내지는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갖춘 집단 시설보다는 좁고 낙후된 시설이라도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고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노숙인을 위한 주거복지지원방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탐구한 H-공동체 사례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천적 제언은 노숙인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를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연구자는 현장에 머물면서 이들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훨씬 그리운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따뜻한 눈길’과 ‘따뜻한 손길’을 요구하였으며, 연구자에게 그들이 내미는 100원짜리 ‘커피 한 잔’은 ‘당신은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게 하였으며, ‘그들만의 고독’을 토로하도록 만들었다. 이 같은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 종사자로서 연구자 역시,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재인식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생각은 사회복지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고쳐 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REFERENCES

[1] S. J. Kim. (2009), Recovering Process for Family Function of a Sobering Person and their Family.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3(1), 63-100.

[2] A. Spickard & B. R. Thompson. (1985). *Dying for a drink: what you should know about alcoholism*. W Publishing Group.

[3] H. S. Cho, I. S. Kim, H. R. Kim & H. Y. Kim. (2017), *Family welfare*, Seoul: Hakjisa.

[4] D. Howe. (1995). *Attachment theory for social work practice*. Basingtoke: Macmillan Press.

[5] J. Orford, E. Oppenheimer, S. Egert, C. Hensman, C. Hensman & S. Guthrie. (1976). The cohesiveness of alcoholism, complicated marriages and its influence of treatment outcom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8, 318-339.

[6] M. Y. Hong. (2017), Understanding the Life of a Female Recovering from Alcohol Addiction Based on a Life History Approach. *Mental Health & Social Work*, 45(2), 33-59.

[7] B. S. Park, H. M. Jin & H. M. Se. (2011). The Relationship of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n Male Alcoholics Exploring on the Roles of Family Function and Family Support. *Mental Health & Social Work*, 38, 172-204.

[8] J. B. Yu. (2009). *A Study of Women alcoholic-Life History Approach-*.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Seoul

[9] Y. A. Choi. (2015). *Disease and A Poor Life*, Seoul:

Young Doctor.

[10] S. M. Kim. (2010), Lived Experiences of Alcoholics Who Are in Early Recovery.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8(2), 125-136.

[11] D. Y. Kim. (2016). *Gentrifying Poor Urban Neighborhood: The impacts on residents and the commun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2] H. J. Oh. (2015). *A study on the social capital among neighbors in the populated areas of the people with housing vulnerability*. Unpublished docto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3] C. R. Sang & M. K. Choi. (2019). Daily Life of the Alcohol Dependents and Homeless living in Jjokbang Village : Focusing on a Totalistic Ethnography Approach. *Journal of Qualitative Inquiry*, 10(1), 35-62.

[14] J. P. Spradley. (1979).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5] Y. D. Kim. (2018). Deinstitutionalization and Building Community-Based Personal Social Services: Community Care that Connects Independence and Interdependenc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8(3), 492-520.

최 미 경(Choi Mi Kyung)

[정회원]



- 2013년 2월 :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 2018년 8월 : 서강대학교 가톨릭 사회복지학과 박사
- 2018년 8월 ~ 현재 :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연구원

- 관심분야 : 다문화, 가족복지, 정신건강, 여성, 프로그램 개발
- E-Mail : ingmk66@hanmail.net

상 중 열(Sang Chong Ryel)

[정회원]



- 1996년 2월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 2013년 2월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 2018년 1월 ~ 현재 :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 관심분야 : 약물 중독, 행위 중독, 문화복지, 교육복지
- E-Mail : crsang@hanmail.net